

바둑

“광주 Kixx 때문에...” 영남일보 막판 실족 2위로

영남일보가 한국바둑리그에서 2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에 실패했다. 영광의 우승은 신성건설의 몫으로 돌아갔다. Kixx가 패배를 맞은 영남 일보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잡아준 덕분이다.

지난 8일 2패를 당해 위기를 맞은 영남일보는 9일 오후 7시에 속개된 3국에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찍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Kixx 박정상 선수가 영남일보 허영호 선수를 상대로 백불계승을 거둬, 중간스코어 3:0으로 남은 대국과 무관하게 팀 승리를 결정지었다.

팀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일까? 허영호는 중반까지 다소 기분좋은 흐름으로 국면을 운영하는 듯했으나 강력하게 반발하는 박정상을 응징하지 못하는 바람에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그 바람에 정작 즐거운 팀은 신성건설. 영남일보가 이길 경우 1위 자리를 내줘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Kixx의 활약(?)으로 정상을 지켰기 때문이다. 주장 이창호를 뺀 Kixx에게 이겨줘 무너지는 바람에 영남일보

2008 바둑리그 정규리그 순위표 (최종) 순위 팀 승-패 총승수 1 신성건설 10-4 38 2 영남일보 9-5 43 3 월드컵메디앙 9-5 39 4 제일회재 8-6 38 5 울산다이체 6-8 27 6 티브로드 5-9 36 7 한게임 5-9 32 8 Kixx 4-10 27

의 아쉬움은 더욱 컸으리라. 3국이 시작하기 전에 만난 신성건설 양재호 감독은 “만일 저희팀이 우승한다면 어부지리죠”며 너스레를 떨며는 바람에 그대로 ‘정규리그 우승 끝판’을 흔들 수 있었다. 8연승으로 질풍노도처럼 질주하던 영남일보는 이창호 선수를 결장시킨



지난 8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한국바둑리그에서 Kixx 박정상(왼쪽)이 영남일보 허영호를 상대로 불계승을 거둔 모습. (사이버오로 제공)

신성건설 10승 4패, 한국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 Kixx 끝까지 탈출 실패...오늘부터 포스트시즌 돌입

Kixx를 상대로 빠아른 패배를 당해 9승 5패를 기록, 아쉽게도 2위로 만족해야 했다. Kixx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창호에도 끝까지 탈출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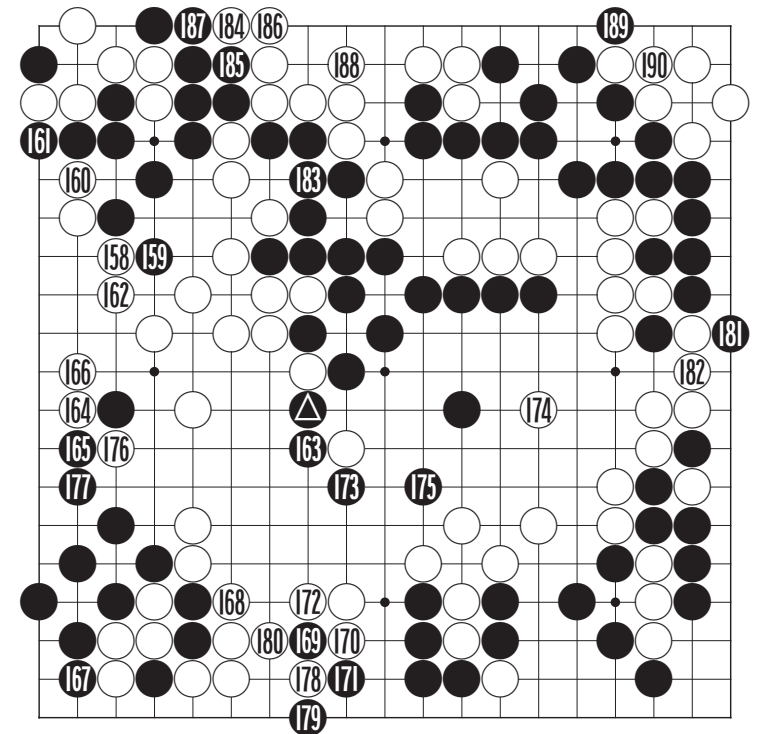
팀 패배를 안은 영남일보는 장고바둑과 5국에서 만회, 체면을 살렸다. Kixx가 영남일보를 상대로 종합전적 3:2로 승리하며, 약 8개월간의 전후기 바둑리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

다. 이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네팀의 진정한 승부가 이어진다. 2억7천만원의 우승상금을 거머쥐기 위한 네팀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포스트시즌은 정규리그와 달리 '5판 3선승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느 팀이든 먼저 3승을 거둬 팀 승리를 결정지으면 이후 예정된 대국은 취소된다.

먼저 15일, 16일에 3위 월드컵메디앙과 4위 제일회재의 준플레이오프가 벌어진다. 4위팀이 사전에 장고바둑 선수오더를 오픈하는 규정에 따라 제일회재는 김승재 선수를 오픈. 이홍열 감독은 “처음에는 최철한 선수를 생각했고, 홍민표 선수를 고려했다. 하지만 팀원들과 상의한 끝에 김승재 선수를 바꿨다”고 말했다.

제일회재 선수 중 바둑리그에서 부진한 선수를 오픈한 데 대해 월드컵메디앙 장수영 감독은 누구를 맞선대로 내보낼 지도 궁금하다. 막상 오픈 오더에 대해 강한 선수를 내보낼 것인지, 비슷한 느낌의 선수를 출장시킬 지는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흑의 독무대 제89회 전국체전 바둑대회 어린이부 결승 10보(158~191) 白 나태현 (경기도) 黑 현승민 (제주도)



우상귀에서 현승민군이 욕심을 부리다가 상당한 손해를 보았으나 불행중 다행으로 흑 ▲의 요체를 두게 되어서는 흑의 우세가 확립되었다.

나태현군도 세불리를 의식하여 백 158부터 열심히 끝내기 하고 있으나 차이를 좁혀줄 줄이지 못하고 있다. 162까지 상당한 끝내기를 해지웠으나 흑 163 역시 두터운 곳이다. 백 164가 끝내기 맥점으로 의

서 매우 큰 곳이다. 흑 169도 큰 곳이며 현승민군은 172에서 손을 빼서 흑 173, 175로 중앙 백 한 점을 잡았는데 이것이 맞고도 컸다. 이것으로 두집도 겨우 낫던 중앙 흑 대마가 10집 이상을 내면서 승부도 흑의 승리로 완전히 결정되고 말았다.

이후의 끝내기도 흑 183이 선수가 되고 191로 때내는 등 흑의 독무대였다. 이후의 수순은 홍보를 보자. <요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김지석 4단 결승 선착

신예프로 10결전, 이태현 초단 꺾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스카이라이프 TV에서 열린 제12기 SK가스배 신예프로 10결전 A조 리그에서 김지석(사진) 4단이 이태현 초단을 209수 끝에 흑불계로 물리치고 결승전 골문을 통과했다.

리그 4승 1패를 기록한 김지석 4단은 최소 통틀재대국을 확보했다.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박정환 3단이 마지막 대국을 패할 경우 결승진출 티켓은 자연스럽게 김지석 4단의 차지다.

그러나 박정환 3단이 승리할 경우 통틀재대국은 피할 수 없다. 박정환 3단의 마지막 대국 상대는 권희진 5단. 권 5단이 A조 리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박정환 3단의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

선두권을 달리며 생애 첫 결승 진출을 노렸던 이태현 초단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주저앉으며 다음 대회를 기약하게 됐다. B조 리그에서는 한상훈 3단이 4전 전승, 김가을 4단이 3전 전승을 기록하며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SK가스배는 A·B 조 각 6명이 리그전을 벌여 각 조 리그 1위를 차지한 두 선수가 3번기표 우승을 가리며 나머지 각 조 동 순위 기사들끼리는 순위 결정전을 치러 10위까지 결정한다. 각 조 리그 진행시 통틀이 날 경우 1위 결정전은 재대국, 그이외의 경우는 리그서열 순으로 각 조의 순위를 결정한다. /이종태기자 jilee@

‘노장 총 집합’ 강진서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17일까지 한·중·일 등 7개국 150여명 참가

‘영원한 국수(國手)’ 김인(65) 9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고향인 강진에서 열리고 있다. 강진군은 (사)대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김인 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14~17일 최강부와 상급, 중급, 초급 등 기록에 따라 4개 부문으로 나눠 치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총호선, 6집만, 제한시간 각자 30분, 초읽기 30초 3회로 진행된다. 최강부 우승자에게는 700만원 상당의 비자바둑판 세트와 고급 청자트로피가 수여되며 각 조 우승자에게도 상장과 함께 각종 부상이 주어진다.

60세 이상 아마추어만 출전이 가능하며 한국을 비롯 일본·중국·대만·홍콩·대국·네덜란드 등 7개국에서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강진군 임병재 스포츠기획팀장은 “국내에서 60세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바둑대회를 연 것은 처음 일 것”이라며 지역 이미지 제고와 바둑인구 저변확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살에 프로기사로 입단한 김국수는 1966년부터 국수위를 6년 패하는 등 통산 30회 우승기록을 보유한 바둑계의 거목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만 바둑 신동 세계아마바둑대회 우승

12세 소년인 대만 바둑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3회 국부총리배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서 대만의 지엔리전(사진) 초단이 우승했다.

대만 바둑사상 최초로 세계아마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엔리전 초단은 올해 9월 연구생입단대회를 통해 입단한 신예이다. 대만기권대회에서 대만의 지엔리전(사진)은 1월이 이후 공식적인 프로대회에 출전하게 될 때

에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대회에만 출전하고 있다. 우승을 차지한 지엔리전에게는 국보 188호로 지정된 신라시대의 천마총금관(天馬塚金冠) 모양의 우승 트로피가 수여됐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eryung Law Firm (해령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T:062)225-2665 H,P:011-605-7777. Lists various services and office loca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im Dang Bu Dong San (금당부동산). Contact: (062)223-7400.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commercial buildings and residential uni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WJB Welbing Gong In Jung Gae Sa (웰빙공인중개사). Contact: 062)575-8389. Focuses on GS24 properties and offers various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ou Gong In Jung Gae Sa (다우공인중개사). Contact: 052)3-8114. Lists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 In Dong Sam Il Bu Dong San (대인동삼일부동산). Contact: (042)223-1140. Lists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